

## 포천 축산인 부인회

# 돈육요리 시식회 성황리에 개최



### 이 원 복 기자

포천지역 축산인 부녀회(회장 : 이정희)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2시 포천축협 2층에서 식생활 개선을 위한 돈육요리 시식회를 개최했다.

돈육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이해 증진, 돈육요리의 개발보급 확대, 양돈산업의 주체의식 고취라는 목적 아래 열린 돈육요리 시식회는 일반 여성, 축산관련인, 식생활관련 공무원, 단체급식소 영양사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자리에서 이정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이상구 건강법으로 인해 육류의 소비가 크게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고, 「현 시기를 감안하여 돈육요리의 개발과 보급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시식회에는 포천지역의 각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계만 포천지부장과 임택선 포천경찰서장은

격려사와 더불어 부인회 회원들과 담소를 하는 등 이번 행사를 더욱 빛내 주었다.

공식행사가 모두 끝나고 축산인 부녀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23가지의 돼지고기 요리가 선을 보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참석자들은 돈육요리연구기관이나 전문 요리사들이 하는 행사가 아니라서 돈육요리가 더욱 맛이 있었다며, 음식이 없어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시식을 했다.

특히, 이날 돼지고기요리 시식회에는 한국식 스테이크, 한국식 갈비 바베큐, 삼겹살 편육 등 한국적인 돼지고기요리를 등장시켜 많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식생활 개선을 위한 돈육요리 시식회를 준비한 포천축산인 부녀회는 지난 12월 10일 결성되어 12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양돈업을 하는 부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축산인 부인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정희씨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조직을 더욱 활성화 시켜 빠른 시일 내에 포천지역 축산인 부인들을 전원 가입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값싼 외국의 농축산물 수입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생산자 스스로가 소비홍보 요원화가 되어 소비촉진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천지역 축산인부녀회 돈육요리 시식회는 대한양돈협회 포천지부(지부장 : 김계만), 축협포천지부(조합장 : 이규문), 포천축산기업조합(조합장 : 김의일)에서 후원했다.